와코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코 박물관은 이 지방에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일본의 독자적인 제철법 '다타라 제철'의 역사와 발전을 소개하는 박물관입니다. 일본도를 실제로 잡아보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전시품을 관람하기 전에 시어터 룸에 들러 다타라 제철 공정을 소개하는 15 분 정도의 영상 시청을 추천합니다. 이 단편 영상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다타라 제철법으로 철을 제조하는 닛토호 다타라 제철소의 제련 작업을 담고 있습니다. 점토, 사철, 목탄과 같은 간단한 재료로 옥강(玉鋼, 다마하가네)이라 불리는 일본도 제작에 필수적인 고급 강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영어 자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층과 2 층 전시실에서는 이 지역에서 제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해 왔는지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6 세기 후반에 일본으로 철광석의 제련 기술이 전해진 후, 철광석보다 채취하기 쉬운 사철을 제련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양질의 철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원료를 대량으로 입수하는 방법이 생겨났고 이에 더욱 강력한 풀무와 용광로가 제작되었습니다. 20 세기에 근대 제철이 발달함에 따라 단단하면서 튼튼하다고 알려진 새로운 특수강 '야스키하가네'가 탄생했고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야스키하가네는 지난 수세기에 걸친 강철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새로운 장에 해당합니다.